

8 인터뷰-‘라돈 침대’ 등을 취재한 SBS 기자 강청완 동문(언론정보학 05)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사회에 이로운 보도를 하는 것이 그가 맺고자 하는 관계입니다.

(사진=서세종 기자)

“공익 가치 크다면 보도하는 것이 기자 역할”

유경민 기자 gmni0313@khu.ac.kr

# 대화는 함께 살아가는 타인을 이해하는 좋은 방식임과 동시에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신문은 각 분야에 진출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해 비쁜 일상을 살아가던 나 자신과 마주 보려 합니다. 공익에 도움이 되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SBS 기자 강청완 동문(언론정보학 2005)을 만나 ‘사람들과 함께하는 취재와 기자로서의 삶’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현재’에 최선을

강 동문을 대표하는 기사는 ‘라돈 침대’ 보도 기사입니다. 지난 2018년 유명 침대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된 적 있습니다. 당시 단독 취재한 그는 보도 초기, 주위에서 오보라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꼼꼼한 공부와 취재를 바탕으로 후속 보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은 대학 시절에도 같았습니다.

“분야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열

심히 한 활동이면 모두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강 동문은 대학 시절,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학교 홍보처에서 인터넷 기사를 작성하며 기자와 관련 있는 활동으로 마감 시간의 중요성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글의 무게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시에는 언론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던 활동도 후에 기자로서의 삶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특히 강 동문은 주장으로 활동했던 축구 동아리에서 리더십과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는 “포세이돈이라는 학과 축구 동아리에 참가하며 팀워크를 배울 수 있었고 그런 부분이 기자가 돼서도 중요했다”며 “취재를 위해 카메라 기자를 비롯한 여러 스태프와 함께 하는 부분에서 팀워크 경험의 도움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함께 하는 취재

어릴 때부터 신문을 즐겨 읽고 글쓰기를 좋아하며 막연하게 그려왔던 기자라는 꿈은 우연한 기회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언론사 아르바이트를 하며 치열하게 진로를 탐색하던 그가 옆에서 지켜본 기자의 삶은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의 가치관에 어울리는 직업이었습니다. 강 동문은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재밌게 일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기자라는 직업에 도전해보고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이후 전공 공부가 적성에 맞고 특강을 오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확신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치열한 탐색 끝에 선택했지만, 기자로서의 삶이 처음에는 그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강 동문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을 만나다가 취재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초반에는 쉽지 않았다”면서도 “기자는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 직업”이라고 전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는 누군가 이미 알고 올려놓은 정보이기에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면 항상 사람을 만나서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지난 2018년 강 동문이 사회에 라돈 침대의 위험성을 알린 기사 역시 사람을 만나며 얻은 정보를 토

대로 작성한 기사였습니다. ‘전국 학교 라돈 지도’와 관련해 같이 일하던 사람이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타인에게서 제보를 얻기도 하지만 본격적인 취재부터는 기자 자신의 꼼꼼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는 직접 의뢰해 측정한 수치를 바탕으로 라돈 침대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논문 같은 관련 자료도 많이 읽고 거의 한 달 동안 공부했다”며 “물어보는 공부도 많이 물어봤다”고 말합니다. 주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물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는 기자가 ‘계속 배워나갈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 동문은 “기자는 취재 현장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상황과 사람들을 보게 된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직업이라 생각한다”고 전합니다.

“사회와 나와의 관계를 고민하라”

그는 기자로서 많은 사람과 만나면서도 의식적으로 일정 거리를 두

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또 ‘타인에게 잠식되지 않고 객관적인 자세로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것’을 기자로서 지향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강 동문은 “공익의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보도하는 것이 기자의 역할”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요즘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심해진다며 기성 언론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강 동문은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것은 확실한 문제이고 과거보다 그런 경우가 늘어난 건 사실”이라면서도 “기성 언론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은 바른 정보를 보려고 한다는 믿음이 있다”고 전합니다.

대안 매체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강 동문은 세상을 바꾸는 공익 성격의 특종은 축적된 경험, 인력 등의 이유로 결국 기성 매체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기자로서 주목받으려 하기보다는 사회를 위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강 동문은 “사회와 나와의 관계를 고민하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사회에 이로운 보도를 하는 것이 그가 맺고자 하는 관계입니다.